

전교조의 조직 구성 1/4

의사결정기관: Pyramid Structure

① 전국대의원대회:

약 500여명, 조합 **최고의 의사결정** 기구

② 중앙위원회:

약 100명,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들어진

전략과 전술을 집행

③ 중앙집행위원회 :

사실상 전교조를 움직이는 **핵심조직**; 약 20 -30 명, 거물급이다.

전교조의 조직 구성 2/4: 지역기구

①지부:

시, 도 단위로 지방 **17개 도시**

시, 도 교육청과 대응, 교섭

② 지회:

시, 군, 구 단위.

시, 군, 구 교육청과 대응, 교섭

③분회:

전교조의 **근간조직**.

학교 단위의 분회, **약 5명**으로;

국가의 교육 시스템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형식으로 조직을 만들었다.

5명이 활동하면서 교사들을 **친전교조 세력**으로 만든다. 그래서 **5명** 정도지만 실제로는 **광범위한 지지세력**을 만들어 놓는다.

전교조의 조직 구성 3/4: 조합원

1999년: 55,666명

2003년: 93,860명(최고점)

2006년: 86,918명

2008년: 73,319명

2015년: 49,327명

전교조의 조직 구성 4/4: 조합비

조합비는 매월 기본급의 0.8%를 납무개인당 약 2~3만원.
전교조가 **법외 노조**가 되서 약 3만명 정도 탈퇴하고 2만명 정도가 남았다고 본다.

노무현 정권 2006년 57억 원을 지원받음

2001-03 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등 총 **31억원**의 공적자금을 지원(월간조선의 2003년 9월 기사)

법외노조가 된 후에도 **7개의 교육청**에서 **2년간 약4억원**의 보조금을 지원했거나 예산 편성 (2017년 5월 동아일보 기사)

전교조의 정파

①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(교찾사)

전교조 내 최대 규모, 민중민주(PD)계열, 좌파(강성), 노조로서의 활동을 우선시,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는 사업에 치중
[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]

②참교육실천연대(참실련)

참솔(민족해방, NL계열)과 '교육과 노동포럼'의 합병 → 혁단(혁신과 단결을 위한 전국교사 모임)

참실련, 우파[전교조 안에서]. 자주, 민주 통일 관심, 통일교육 [주사파 중심]